

2024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②	2	⑤	3	②	4	④	5	①
6	②	7	①	8	③	9	⑤	10	④
11	④	12	①	13	②	14	①	15	⑤
16	①	17	③	18	②	19	④	20	④
21	③	22	①	23	④	24	②	25	①
26	⑤	27	③	28	⑤	29	④	30	④
31	①	32	⑤	33	②	34	②	35	⑤
36	③	37	⑤	38	③	39	④	40	⑤
41	③	42	③	43	③	44	⑤	45	③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을 이해한다.

발표 화제인 트릭 아트의 개념과 원리, 활용 분야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역사적 일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 ‘체험 활동 때 방문했던 트릭 아트 체험관 기억나시나요?’에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청중에게 ‘이해되셨나요?’라고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므로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④ 2문단, 4문단에서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며’, ‘왼쪽 부분을 가리키며’, ‘자료를 가리키며’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이 설명 대상인 시각 자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도서관에 있는 관련 책들을 찾아보거나 제가 보여 드리는 트릭 아트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며 정보의 추가적 탐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에서의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은 발표자가 청중에게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례로서 시각적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은 트릭 아트가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로서 실용적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을 통해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라고 언급하여 착시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착시 현상의 방해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② ㉠은 트릭 아트의 전시 환경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을 활용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트릭 아트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④ ㉠은 트릭 아트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청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언급하며 청중이 트릭 아트의 착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한 자료로 트릭 아트의 사회적 의의를 설명한 자료가 아니며, ㉡은 트릭 아트의 예술적 의의를 설명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출제의도]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한다.

발표자는 3문단에서 ‘시각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혼선이 생길 때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와 ‘이미지를 중첩시켜 불분명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정보를 제시하며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대답한다. 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청중이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가 대답한 내용에 트릭 아트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발표자가 대답한 내용에 트릭 아트의 대표 작품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④ 발표자가 대답한 내용에 트릭 아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착시 현상 외의 다른 것을 이용하는지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 없다. ⑤ 발표자가 대답한 내용 중,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착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다.

4. [출제의도] 토론의 사회자 역할을 이해한다.

토론 과정에서 사회자는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자들의 발언을 조정하며 협력적 분위기를 이끌어 토론을 진행한다. (가)에서 ‘지현’이 언급한 내용 중 토론자들이 발언한 내용들의 사실 관계, 즉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지현’은 첫 번째 발언에서 토론의 배경이 되는 「자전거 도둑」의 소설 내용과 토론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② ‘지현’은 두 번째 발언에서 토론자들에게 ‘소설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라고 말하며 소설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③ ‘지현’은 세 번째 발언에서 ‘정리하면, 민준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니까 수남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고, 하연은 수남이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가 없었기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구나.’라고 말하며 민준과 하연이 책임 여부에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과 근거를 정리하여 언급하고 있다. ⑤ ‘지현’은 네 번째 발언에서 ‘그러면 수남의 책임 여부 말고 다른 쟁점은 없을까?’라고 물어보며 토론의 다른 쟁점으로 유도하고 있다.

5. [출제의도] 토론에서의 말하기 전략을 이해한다.

(가)의 [A]에서 민준은 어른이 비상식적으로 어린이에게 큰돈을 요구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신사는 수남의 처지를 고려해 줘’라는 하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매정한 행동이야.’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A]에서 민준이 질문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③ [A]에서 민준은 ‘5천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 큰돈을 요구했어.’라고 말하며 당시 시대 기준으로 돈의 액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소설의 배경인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한 정보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④ [A]에서 하연은 민준이 언급한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단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 하연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민준이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덧붙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토론 내용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나)에서는 ‘자전거를 들고 간 수남의 행동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에 대한 입장만 제시할 뿐, 이와 관련한 수남의 고민을 소설 속에서 찾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토론의 쟁점은 책임 여부와 합의 여부이다. 책임 여부와 관련한 하연의 주장은 (나)의 1문단에서, 합의 여부와 관련한 주장은 (나)의 2문단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토론의 순서와 일치한다. ③ (나)의 1문단에서 ‘바람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이라고 말하며 상대방 주장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한 후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또한 ‘신사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떠났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겠

지만’이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남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줄여 주었다.’와 ‘수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를 근거로 반박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나)의 1문단에서 태풍에 의해 주택 유리창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새로운 사례를 추가로 언급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나)의 3문단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목인 ‘자전거 도둑’이 수남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한다.

<보기>에 의하면 수남이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자전거가 담보로 잡힐 수 있다. 이에 형법 제 323조에 따라 신사는 자전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남이 이를 가져가거나 숨기는 행위는 신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여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수남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보기>에 의하면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자전거를 가져가거나 숨기는 경우이므로 ‘잘못을 인정한 행위’는 이와 관련이 없다. ③ <보기>에 의하면 수남이 보상받지 않아 자전거가 담보로 잡힐 수 있지만, 이는 신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토론 내용에 의하면 수남은 자신의 자전거를 묶지 않고 신사가 수남의 자전거를 묶었으므로 사실 관계가 올바르게 않다. ⑤ <보기>를 통해 수남의 권리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남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수남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8.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초고에는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거북이 등대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면’에서 의인법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늦봄’, ‘여름 방학’, ‘늦여름’, ‘가을’이라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옥수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갈치국과 갈치조림의 대비를 통해 두 음식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2문단의 ‘검정 바위로 만들어진 거북이 조각상이 새하얀 등대를 이고 있어서’, 3문단의 ‘연두색 옥수수수염이 점점 갈색빛으로 물들며’, ‘셋노란 옥수수’에서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초고에는 ‘나’가 요리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장면을 찾을 수 없으며 보람을 느끼는 내용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할머니를 곧 뵙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했다.’에 할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설레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② 3문단의 ‘그러다 참지 못하고 옥수수 껍질을 살짝 열어서 얼마나 익었는지 들여다보다가 할머니께 꾸중을 듣기도 했다.’에서 옥수수 껍질을 열다가 할머니께 꾸중 들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③ 3문단에서 ‘나는 익어가는 옥수수를 보며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에서 옥수수를 통해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④ 4문단에서 ‘할머니께서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었던 기억도 있다.’라는 부분과 ‘갈치국을 맛있게 먹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할머니’라는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할머니가 끓

여 주신 갈치국을 먹은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초고를 보완한다.

‘할머니 손길로 익어 가는 옥수수처럼 나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물들었다.’에 직유법이 활용되었고,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은 나를 채운 온기였다.’에 할머니와의 시간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답풀이] ① ‘섬의 풍경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에 직유법이 나타나 있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윤슬이 넘실거리는 바다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라는 부분에서 직유법이 아닌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할머니와의 추억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할머니와의 추억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와 직유법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의 어린 시절이 찬란하게 빛난다.’에서 할머니와의 추억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드러나지만,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이해한다.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어근과의 결합 위치에 따라 둘로 나뉘는 것은 접사이다. 접사 중 어근 앞에 위치하는 것은 접두사, 어근 뒤에 위치하는 것은 접미사이다.

[오답풀이] ①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이르는 말이다. ②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③ 접사는 항상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기에 홀로 쓰지 못함을 나타내는 붙임표(-)를 붙인다. ⑤ 접사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12. [출제의도]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파악한다.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를 둘로 나누어 단어의 짜임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나뉜 두 부분 중 하나가 접사인지 여부가 단어 분류의 판단 기준이 된다. ①의 ‘볶음밥’의 직접 구성 성분은 ‘볶음’과 ‘밥’으로 볼 수 있으며, 나뉜 두 부분 모두 접사가 아니다. 따라서 ‘볶음밥’은 ‘[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합성어로 분류한다.

[오답풀이] ② ‘덧버선’의 직접 구성 성분은 ‘덧-’과 ‘버선’으로 볼 수 있으며, ‘덧버선’은 ‘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파생어로 분류한다. ③ ‘문단속’의 직접 구성 성분은 ‘문’과 ‘단속’으로 볼 수 있으며, ‘문단속’은 ‘어근+어근’으로 분석되는 합성어로 분류한다. ④ ‘들고양이’의 직접 구성 성분은 ‘들-’과 ‘고양이’로 볼 수 있으며, ‘들고양이’는 ‘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파생어로 분류한다. ⑤ ‘창고지기’의 직접 구성 성분은 ‘창고’와 ‘-지기’로 볼 수 있으며, ‘창고지기’는 ‘어근+접사’로 분석되는 파생어로 분류한다.

13. [출제의도] 자음 체계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 현상을 탐구한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 중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교체라고 한다. 교체 현상 중 하나로 동화가 있는데, 이는 한 음운이 인접한 음운의 영향으로 그 음운의 조음 방법 혹은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것이다. ‘ㄱ. 난로[날로]’는 뒤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뀌며,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에 해당한다. ‘ㄷ. 툽날[툽날]’은 뒤의 음운 ‘ㄴ’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ㄷ’이 ‘ㄴ’으로 바뀌며,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에 해당한다. 한편, ‘ㄴ. 말이[마지]’는 뒤의 음운 ‘ㅣ’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ㄷ’이 ‘ㅈ’으로 바뀌며,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바뀌는 단어에 해당한다. ‘ㄷ. 실내[실래]’는 앞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뒤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뀌며,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ㄴ은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뀌지만,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ㄴ은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뀌지만,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ㄷ은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ㄴ은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뀌지만,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ㄷ은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탐구한다.

‘작다’와 ‘적다’처럼 혼동될 수 있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ㄱ은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¹’, ‘작다²’와 ‘적다²’를 고려할 때 ‘적다²’가 적절하다. ‘작다²’에 사용된 화살표(→)는 ‘작다²’를 ‘적다²’로 바꾸어 쓰라는 의미이므로 그에 따라 ‘적다²’의 의미를 함께 참고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ㄴ은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¹’의 「2」를 고려할 때 ‘작다¹’가 적절하다. ③ ㄷ은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¹’의 「3」을 고려할 때 ‘작다¹’가 적절하다. ④ ㄹ은 ‘사람됨이나 생각 따위가 좁고 보잘것없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¹’의 「4」를 고려할 때 ‘작다¹’가 적절하다. ⑤ ㄹ은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작다¹’, ‘작다²’와 ‘적다²’를 고려할 때 ‘적다²’가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인용 표현을 탐구한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높임, 시간, 인칭, 지시, 문장 종결 표현 등을 적절히 다시 서술해야 한다. ㄹ에서 ‘민지’가 부른 ‘너’는 ‘나’에 해당하므로, 인칭 표현인 ‘너’를 ‘나’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ㄱ은 문장 종결 표현인 ‘꺾구나’를 ‘꺾다’로 적절히 바꿔 서술하였다. ② ㄴ은 높임 표현인 ‘갓어요’를 ‘갓다’로 적절히 바꿔 서술하였다. ③ ㄷ은 시간 표현인 ‘내일’을 ‘오늘’로 적절히 바꿔 서술하였다. ④ ㄹ은 지시 표현인 ‘이’를 ‘그’로 적절히 바꿔 서술하였다.

[16~20]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 (가) 김기택,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나) 김약련, 「두암육가」

(가) 김기택,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힌 화자가 초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깨닫게 된 자연의 역동적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 드러난 작품이다. 초록은 여리고 부드럽지만, 불길처럼 맹렬한 기세로 건조하고 딱딱한 도시 공간을 촉촉하게 적시며 온 세상을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치밀한 관찰과 투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고요한 가운데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포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 김약련, 「두암육가」

하얗게 센 머리를 들여다보며 대장부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드러내는 한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경계해야 할 일과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재산 축적이나 과거 급제와 같이 운수나 하늘의 뜻에 달린 일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권유하며,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자신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고 있다.

16.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여리고 연’하며 ‘휘어지는’ 등과 ‘직선과 사각’, ‘딱딱하게’ 등이 대조되며 세상을 뒤덮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자연의 생명력이 부각되고, (나)는 ‘굳은 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희었네’,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에서 젊음과 늙음이 대조되며 지난 삶에 대한 화자의 후회와 탄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는 일부 시행을 ‘초록’, ‘고요’, ‘불길’ 등의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지만, (나)는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명령적 어조를 사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나)는 ‘젊다 하고 믿지 마라’, ‘너희더러 하라’에서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자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대상에 대한 예찬은 드러나지만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나)는 ‘어저’, ‘어우와’ 등의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예찬은 드러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는 ‘초록’이 ‘직선과 사각’의 도시 공간을 덮으며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초록’이 도시 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늙은 후 또 내 되리’는 ‘청년’들이 ‘착한 일’을 하지 않고 ‘호느적호느적’ 살다가는 늙은 후 자신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경고로, 젊은이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의 ‘잠깐 초록을 본’ 것을 계기로 ‘초록’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는 사색이, (나)의 ‘검던 털’이 하얗진 모습을 본 것을 계기로 자신의 늙음을 깨닫고 지난날에 대한 사색이 시작되고 있다. ② (가)의 ‘초록에 붙잡힌 마음’에서 ‘초록’에 매료된 심리가 나타나며, (나)의 ‘발 같고 논 매더면 설마한 들 배고프리’에서 지난날 자신이 농사를 지었더라면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여 현재 너적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④ (가)의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에서 도시 공간에서 발견한 ‘초록’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나)의 ‘급제도 헛 일’이라는 인식은 급제 이후에도 너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되며, 이는 출세를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⑤ (가)의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에서 ‘초록’의 왕성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이, (나)의 ‘이미 늙었구나’에서 이룬 것 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다.

18.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솟아나고 있는/저 저돌적인 고요’, ‘옮겨 불고 있는/저 촉촉한 불길’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콘크리트 바닥에서 솟아오르며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는 ‘초록’의 역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저 저돌적인 고요’, ‘저 촉촉한 불길’에서 지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③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저 저돌적인 고요’처럼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저돌적인 고요’, ‘촉촉한 불길’처럼 의미가 모순된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사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제3수>의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에는 넉넉하지 못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늙어버린 몸으로 무엇인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가, <제6수>의 '내 못하여 애달프니'에는 청년에게 '착한 일'을 권유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해당 구절에서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1수>의 '어저 내 일이야'에 담긴 한탄은, <제2수>의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한 것에서 비롯된다. ② <제1수>의 '노대에 도상비로다'에 담긴 애상감은, <제4수>의 '늙어지면 거짓 것이'에서 드러나는 허망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③ <제2수>의 '서른 마흔 한 일 없이'에 담긴 지난날에 대한 화자의 반성은, <제4수>의 '젊어서 흐느적흐느적'하지 말라는 당부로 나타나고 있다. ⑤ <제5수>의 '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은, <제6수>의 '너희더러 하라'에서 권유하는 내용이다.

20. [출제의도] 작품 간 시구의 의미를 비교한다.

(가)의 화자는 나무들이 온 힘을 다해 초록의 진액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무가 초록을 쏟아내기 위해 땅속에서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지에 대해 상상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힘의 근원에 대한 화자의 상상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나)의 화자는 재산이나 과감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현재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재산 축적이나 과거 급제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운수와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에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에는 청자를 향한 원망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에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이질감이 드러나지 않으며,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에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에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나타나지 않으며, ㉡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수용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21~24] (예술) 닐 콕스, 「입체주의」

20세기 초 과학 문명의 발전과 기존 인식에 대한 의의를 배경으로 등장한 큐비즘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기존 회화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회화 속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그려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큐비즘은 대상의 세부 묘사와 고유색을 배제하고 사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대상의 전체 형태를 동시에 제시하기 위해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관찰하여 그 모습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하학적 단순화와 다중 시점을 주요 표현 기법으로 하는 시기를 초기 큐비즘이라고 한다. 이는 관람자를 회화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만들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대상을 최대한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욕구는 큐비즘 화가들로 하여금 다중 시점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하였다. 대상의 형태를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는 '분석적 큐비즘'에서는 그 해체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그림에 표현된 대상의 부피감이 상실되었으며, 색채 역시 초기에 비해 훨씬 더 자제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가 그림의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자, 큐비즘은 대상의 형태를 다시 관람자에게 인식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대표적 표현 기법인 '과외에 콜레'는 종이를 캔버스에 직접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화면 밖 사물을 재료로 화면 안의 대상을 표현하는 최초의 시도였다. 이러한 시기의 회화 양식을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한다. 기존 회화를 거부하고 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탐구한 큐비즘은 표현 대상을 실제 사물로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1.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이 글은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큐비즘의 목표와 표현 기법,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 의의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의 논쟁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2, 3문단에서 큐비즘은 단순화, 다중 시점의 표현 기법을 활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큐비즘은 20세기 초 유럽의 과학 문명 발전과 이로 인한 인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4, 5문단에서 큐비즘이 분석적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의 단계를 거치며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을 언급하고 있다. ⑤ 6문단에서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이 이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추론한다.

3문단에서 다중 시점이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한 시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 주려는 시도가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는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큐비즘은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그려 냈으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려 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큐비즘은 사실적 표현을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상의 해체는 그 형태를 최대한 여러 시점으로 보이려 한 시도의 결과이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려 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큐비즘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으므로 대상의 극단적 해체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결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5문단에서 종합적 큐비즘은 대상의 극단적 해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면 밖 실제 사물을 재료로 도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의 해체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 큐비즘이 분석적 큐비즘과 달리 화면 밖 재료를 통해 대상을 표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의 고유색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제목을 통해서도 대상을 드러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을 격자 형태로 해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에서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을 그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해체하였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2문단에서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 내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브라크의 「에스타르크의 집들」에서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이유

는 풍경 속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그렸기 때문이다. 또한, 5문단에서 관람자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법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풍경을 실제와 다르게 그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집이 입방체 형태인 것은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한 결과이다. 2문단에서 이러한 기법이 그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표현된 것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3문단에서 이를 위해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집에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를 배제한 결과이다. 2문단에서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풍경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표현된 것은 색채를 제한한 결과이다. 2문단에서 색채가 본질 구현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색으로 제한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5~28] (현대소설) 전상국, 「달팽 씨의 두 번째 죽음」

이 작품은 주인공인 '달팽 씨'가 유명세에 중독되어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두 번의 상징적 죽음을 통해 그리고 있다. 달팽 씨는 우연한 기회로 언론에 의해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푼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게 된다. 그 이후에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식으로 선행을 베푼고 거짓을 지어낸다. 그러한 거짓으로 인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끝내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달팽 씨의 몰락을 통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 역시 비판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으나, 공간적 배경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팽 씨의 모습'이나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달팽 씨와 아들딸 간의 갈등, 달팽 씨와 아내 간의 갈등 상황이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④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⑤ '그러나 어쩔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팽 씨에게서 자꾸 멀어져가고 있었다.', '날 샌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고'와 같이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달팽 씨의 부인은 달팽 씨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자신에게 탓을 하며 '사자처럼 포효하며 화를 내는' 달팽 씨에게 맞서 대들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청중들은 달팽 씨의 강연을 듣고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주억거리는 등 강연 내용에 감명을 받았다. ② 달팽 씨의 아들딸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달팽 씨의 부인은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③ 종업원들이 달팽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 주간 신문 기자는 달팽 씨의 아내만 만났고, 달팽 씨는 만나지 못했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달팽 씨에게 씌워진' 친선 단체의 회장직 감투'는 달

평 씨가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얻게 된 명예와 유명세의 허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철저히 속이려는 달평 씨의 허위의식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족 줄어들'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 씨의 모습에서 더욱더 심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욕심이 드러난다. ②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공개하자 '다시 달평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④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느냐고 묻는 '아들딸들'의 말을 통해 예전의 달평 씨는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⑤ '달평 씨를 다시 한번 살려 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인 '그네의 외침'은 아내가 가족들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달평 씨의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 달평 씨가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리는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항하는 행위이다.

28. [출제의도] 인물의 행위를 이해한다.

㉠은 달평 씨가 대중에게 반항을 일으켜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가고 있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행위이고, ㉡은 가족들과 대중에게 반항을 일으켜 아들딸들에게 추궁받고 있는 상황을 피함과 동시에, 세상의 관심을 받는 상황으로 바꾸어 보려는 행위이다.

[오답풀이] ① ㉠은 사건의 초점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으로, 초점을 다른 인물로 전환시키는 행위는 아니다. ② ㉡은 다른 인물들이 과거에 벌인 일들을 폭로하는 행위는 아니다. ③ ㉠은 상대인 청중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은 아들딸들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④ ㉡은 ㉠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29 ~ 32] (고전소설) 작가 미상, 「이춘풍전」

「이춘풍전」은 무능한 가장과 유능한 아내의 대비를 통해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진취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조선 후기 고전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가장 춘풍과 남편이 저지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춘풍 아내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수록 부분은 춘풍 아내가 주색잡기에 빠진 춘풍을 꾸짖는 장면과 평양에 가 춘풍을 구하고 추월에게 복수하기 위해 비장으로 변장할 기회를 얻어 내는 장면이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도승지는 작년에는 평양 감사 두 번째 후보였고, 올해 평양 감사가 되었다. 따라서 도승지가 평양 감사직을 연이어 두 번 맡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춘풍 아내는 평양으로 떠난 남편 소식을 듣고 '호조 돈 이천 냥'을 다 갖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돈은 춘풍이 평양으로 떠날 때 호조에서 빌린 돈이다. ② 춘풍 아내는 춘풍이 평양으로 떠나고 집안이 기울자 바느질, 길쌈에 힘써 일하며 살았다. ③ 춘풍 아내는 평양으로 간 춘풍 소식을 듣고도 '부부 둘이 화락하여 백년 동락하여 보자.'라며 춘풍과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있다. ⑤ 대부인이 문안 인사 온 도승지에게 '기특한 일 보았다. 앞집 춘풍의 지어미가 좋은 차담상을 매일 차려오니 내 기운이 절로 나고 정성에 감격하는구나.'라며 차담상 올리는 춘풍 아내의 정성을 칭찬하였다.

30.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A]는 춘풍 아내가 춘풍에게 기녀를 좋아하면 망할 것이니 그런 잡된 마음을 먹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사례를 들

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B]는 춘풍이 춘풍 아내가 제시한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색잡기를 합리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춘풍 아내는 권위를 내세워 말하고 있지 않다. ② [B]에서 춘풍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할 뿐 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③ [A]에서 춘풍 아내는 [B]에서 춘풍이 말할 내용을 예측하고 있지 않다. ⑤ [A]와 [B]는 모두 영웅의 행적을 근거로 삼고 있지 않다.

31.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 내용을 이해한다.

㉠에서 춘풍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에서 춘풍 아내는 유산을 다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 근심이 더욱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③ ㉢에서 대부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려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④ ㉣에서 대부인은 춘풍 아내가 홀로 지낸다는 것을 알고 평양에 함께 따라가서 춘풍을 찾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⑤ ㉤에서 대부인은 춘풍 아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흔쾌히 요청을 수락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춘풍은 각서를 써서 아내에게, 춘풍 아내는 차담상을 차려 대부인에게 신뢰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춘풍이 각서를 쓴 행위는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춘풍은 부모 유산을 다 탕진한 후 가난을 불평하기만 하고 아내에게 빌며 의지만 하는 무책임한 인물이다. ② 춘풍이 부모의 유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전곡 남용을 일삼고 주색잡기에 빠진 것은 경제관념이 없고 현실적 쾌락만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③ 춘풍 아내가 도승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부인에게 접근한 것에서 춘풍 아내의 주도면밀함을 엿볼 수 있다. ④ 춘풍 아내는 춘풍이 저지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인에게 신뢰를 쌓고 마침내 비장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33 ~ 38] (인문) (가) 채인후, 「순자의 철학」, (나) 김용환, 「리바이어던-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가) 채인후, 「순자의 철학」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상이 융성한 시대였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약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간은 타고난 심으로 성을 통제한다. 이렇게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 순자는 위를 통해 성을 변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핵심인 예는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의미한다.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이다. 이때 군주는 예의 근본으로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 주고 그들을 예의 길로 인도해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나) 김용환, 「리바이어던-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싸운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지닌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

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일컫는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의 필요성을 깨닫고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 사회 계약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쳐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이때 국가의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33. [출제의도] 내용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는 전국시대 혼란을 해결하려 한 순자의 견해와 그 의의가 제시되어 있다. (나)에는 17세기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려 한 홉스의 견해와 그 의의가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사회 현상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1문단에서 왕권신수설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④ (가)의 1문단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여러 사상이 융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도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17세기 상황은 드러나 있지만 그로 인한 사상의 탄압 양상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비교하여 내용을 이해한다.

통치자는 계약을 맺은 개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오답풀이] ① 군주는 타고난 성을 변화시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타고난 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인간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군주가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군자는 직분을 정해 주어 백성들이 사회적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인도한다. 그리고 통치자는 개인들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의 힘을 행사하여 개인들의 상호 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④ 군주는 성의 교화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도모하는데 성의 교화는 예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통치자는 공동의 힘이라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처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도모한다. ⑤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현실 정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이다.

3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추리한다.

예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직분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고, 이를 통해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가 세워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은 심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여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이 아니다. ③ 심은 인간의 타고난 인지 능력으로,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예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면서 나라의 통치 규범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는 것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 직분을 정하는 예의 기능과 관련이 없다.

36. [출제의도] 핵심 용어의 개념을 이해한다.

첫 번째 단계의 사회 계약에서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한다. 공동의 힘은 두 번째 단계의 사회 계약에서 성립한다.

[오답풀이] ① 사회 계약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도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는다. ② 사회 계약은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이루어진다. ④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⑤ 첫 번째 단계의 계약에서 개인은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두 번째 단계의 계약에서 그것을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에게 양도한다.

37.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 순자의 경우 심에 해당하고, 홉스의 경우 이성에 해당한다. 그런데 순자의 심은 타고난 인지 능력으로 공포를 느껴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목동들이 위를 행한다는 것은 이익을 좇는 목동들이 심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② 홉스의 견해에 따르면, 목초지의 혼란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홉스는 목초지의 혼란을 자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③ 목초지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상황은 목동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생겨났다. 그러므로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인 예를 통해 혼란한 상황이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으로 혼란한 상황이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④ 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목동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을 그대로 좇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홉스의 입장에서 볼 때, 목동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절대적인 자유인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38.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다.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은 ‘양보’의 사전적 의미이다.

[39~43] (기술) 서정욱, 「나이테의 고고학」

이 글은 나이테를 활용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나무는 매해 하나의 나이테를 만들고 나이테는 심재와 변재로 구성된다. 따라서 나무의 나이는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 나이테의 너비의 변화는 환경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나이테 너비의 변화 패턴을 활용해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연륜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먼저, 살아 있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고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연륜 연대기와 패턴이 겹치는 부분을 활용해 이 둘의 연대기를 연결한다. 계속해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의 연륜 연대기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인 표준 연대기를 작성한다. 최종적으로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의 패턴과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39.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의하면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 의하면 나이테의 특성을 제한 요소의 법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 의하면 나무의 나이테를 위치에 따라 심재와 변재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 의하면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 한다. 이 법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문단에서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제한 요소의 법칙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한다.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심재만 남아 있고 변재가 없는 경우에는 연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연륜 연대 측정 과정에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에 남아 있는 변재 나이테 수와 수령별 평균 변재 나이테 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때 심재 나이테만 남아 있다면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의하면 나무의 꺾일 수피에 근접한 것은 심재가 아니라 변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의하면 진액이 존재하는 곳은 심재이고 변재가 밝은 색상을 띠는 이유는 생장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 의하면 나무의 수령은 변재의 수와 심재의 수를 합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 따르면 나이테의 너비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가장 부족한 환경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을 이해한다.

연륜 연대기는 나이테 너비의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한 것도 역시 변화 패턴이므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의하면 동일한 수종이라도 나무의 생장 환경이 다르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달라지게 되므로 적절하다. ② 6문단에 의하면 패턴 비교를 반복하게 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므로 적절하다. ④ 나무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생장하고, 나이테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 나이테를 활용하여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자료 I에서 서랍1과 서랍2는 같은 나무로 만들었으므로 이 둘의 연대기를 연결하여 자료 III에서 제시된 서랍장의 유물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유물 연대기와 비교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하는데, 자료 II에서 t값과 G값을 근거로 a산 소나무와 b산 소나무 중 a산 소나무의 정보를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a산 소나무의 표준 연대기와 서랍장의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면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절대 연도가 1700년부터 1800년까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랍장의 변재 나이테의 일부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벌채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와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재 나이테 수인 60개에서 유물에 남아 있는 변재 나이테 수인 57개를 뺀 연도 수인 3년을,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지닌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인 1800년에 더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800년에 3년을 더한 1803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t값은 3.5이상, G값은 65%이상의 값을 가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닌다. a산 소나무는 t값은 3.7, G값은 69%이므로 연륜 연대기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서랍1과 서랍2의 나이테 패턴의 중첩을 통해 서랍장의 유물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

다. 이를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1800년으로 확인된다. ④ 자료 II의 100년 된 a산 소나무 변재 나이테 수가 60개이므로 자료 III의 서랍장 연대기에서 확인되는 변재 나이테 수와 비교하여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변재 나이테 중 3개가 가공할 때 잘려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⑤ 서랍장의 제작 연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벌채 연도인 1803년에 건조 기간 1~2년을 더해야 한다.

4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측정하다’는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측정하면’을 ‘수량을 세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헤아리면’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규명하다’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규명하는’은 ‘밝히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고사하다’는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고사할’은 ‘말라 죽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보유하다’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보유하고’는 ‘가지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간주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간주된다’는 ‘여겨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44~45] (희곡) 이미경, 「그게 아닌데」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의 왜곡과 단절이 일어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은 계속해서 진정한 소통을 시도하지만 일방적 소통을 강요당하며 한계를 느낀다. 소통에 실패한 주인공이 마침내 코끼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코끼리 탈출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조련사에게 형사, 의사, 어머니 각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뿐, 그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조련사는 코끼리들이 동물원에서 탈출하려 할 때, 눈치를 쬐으나 일부러 못 본 척했다고 말했다. ② 형사는 조련사에게 배후 세력의 지시로 1년 전부터 코끼리 조련에 투입된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쳤다. ③ 어머니는 조련사의 행동의 원인을 그의 착하고 순진한 성품에서 찾았다. ④ 의사는 조련사의 말과 행동이 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조련사가 코끼리로 변해 가는 모습은 조련사와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 단절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형사, 의사의 말에 미소를 짓는 조련사의 모습은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조련사가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고 의사, 형사의 말에 외면하는 모습을 통해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② 조련사가 폐 지쳐 있는 상태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는 것은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의지에 맞추어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련사가 코끼리 형상을 갖춘 뒤 형사, 의사, 어머니가 박수를 치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되어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는 것은 타인의 의지에 맞추어 순응하는 수동적인 처지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어 형사, 의사, 어머니 사이를 돌며 쇼를 하는 것은 동물원의 코끼리와 다를 바 없는 수동적인 처지로 전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